이대훈 NH농협은행장, 구세군에 성금 전달

NH농협은행은 이대훈 행장이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풍산 본사에서 진행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행사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부터)과 필립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김필수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박우동 풍산 대표이사가 서울 서대문구 풍산 본사에서 진행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행사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협은행

BMW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신임대표 제임스 오스키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12월 1일부로 신임 대표이사에 제임스 오스키(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된 제임스 오스키는 미국 오하이오 출신으로,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를 거쳐 1995년 북미 지역 BMW 파이낸셜 서비스에 입사해 금융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 이후 BMW 파이낸셜 서비스 캐나다, 한국, 일본 등에서 최고재무관리자(CFO)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까지 BMW 오토모티브 파이낸스 차이나에서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최고재무관리자(CFO)를 역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정관장, 알파프로젝트와 상담하세요"

KGC인삼공사는 2일 서울 중구 충무로 한국의 집에서 연말 바쁜 현대인에게 8가지(수면, 간, 눈, 구강, 위, 장, 관절, 혈행) 건강이슈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정관장, 알파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KGC인삼공사

SPC-동반위,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SPC그룹은 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SPC삼립이 동참했다. 김종훈 트래디인터내셔널 대표(왼쪽부터), 이명구 SPC삼립 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프랜차이즈를 M&A하는 기업의 장점

이상헌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프랜차이즈 M&A에서 사용되는 브랜드 인수와 합병은 많은 차이가 있다.

브랜드 인수는 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를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 결과 A브랜드 B브랜드를 지배하지만 A브랜드 본사는 본사대로, B브랜드 본사는 본사대로 존재하는 운영형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합병은 합병하려는 A브랜드와 합병의 대상이 되는 B브랜드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A와 B가 합쳐서 A가될 수도 있고 B가 될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C가 될수도 있는 방식이 합병방식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M&A를 기업의 전략적 성장 수단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경우 실행하는 회사에 결과적으로 독이 될 수도 득이 될수도 있다. 브랜드 M&A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한 방법이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수단과 방법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들은 선택의 문제이지, 필수로 실행해야하는 전략적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나 타 업종의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M&A를 현재 운영중인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황변화를 위한 해결책이나 기업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진행한다. 그 이유는 M&A의 태생적 사업은 신사업투자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M&A가 잘만 성사되면 경영진은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프랜차이즈 M&A를 실시하는 장점요소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프랜차이즈브랜드 M&A는 신사업투자에 비해 빠르고 손쉽게 신규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브랜드 M&A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1, 2브랜드의 성장동력이 하락하는 시점에 신규브랜드를 기획하거나 준비한다. 하지만 신규브랜드에 대한 성장확률이 높지않으므로 인해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기업환경이다. 이때 브랜드 M&A는 기존 운영중인 브랜드를 인수함으로 가맹점,고객,노하우,상품,기술,상표권등 모든 유무형 자산을 귀속시킬수 있다.

2. 소비나 경쟁시장에서 경쟁강도를 유지, 상승시킬수 있다. 프랜차이즈본사가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신규브랜드의 개발과 운영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한다면 그 사업의 진입을 통한 관련시장의 경쟁은 가중될것이며 결과적으로 기존시장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즉 기존시장의 공급가격,공급량,공급브랜드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나 수요기업의 접근과 만족의 변화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3. 빠른 시장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투자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관련 아이템의 소비시장이 가장 좋을 때 가장 많은 이윤과 함께 브랜드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올수 있다. 모든기업이 현재 경기상황상 성장기조에 있다고 지속적 경기성장의 판단에 따라 많은 자금과 시간, 인력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에 진출시 우려되는 리스크범위는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좀더 안정적이며 이미 형성되어있는 소비시장에 브랜드 M&A를 통해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4. 브랜드M&A를 통해 기술습득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과 외식 글로벌기업인 얌(YUM)은 M&A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구글의 경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작은 벤쳐기업부터 하이테크 기업까지 약170개가 넘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추진,기금의 세계적인 IT대표 기업이 됐다. 얌은 KFC브랜드에서 피자헛, 타코벨, 햄버거 브랜드, 해산문전문점 등 세계 120개국에 약 4만개의 점포를 보유한 글로벌 회사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신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전략과 브랜드M&A 전략중 어느 방식이 우수하다고 단정지을수는 없다.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경쟁력, 재무여건 그리고 조직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프랜차이즈 환경상 신규 브랜드기획보다는 시너지가 가능한 브랜드에 대한 전략적 M&A방식이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의 동력을 탑재하는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우리금융, 소외계층에 1.5억 기부금 전달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 성료

우리금융그룹은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우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선정된 20개 복지기관에 총 1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원했다.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은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우리사랑기금 1억5000만원과 온라인 기부 플랫폼에서 추가 모금한 후원금으로 진행됐다. 추가 모금은 지난달 13일부터 해피빈, 같이가치 등의 기부 플랫폼에서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많은 사람의 참여와 관심으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의 하나로 지난달 2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임직원들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아동복지관에 기부될 겨울이불과 방한용품 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첫번째)은 지난달 25일 임직원과 함께 겨울용품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당용품은 아동복지기관으로 전달됐다. /우리금융그룹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외교부** ◇ 대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윤순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서기관 박은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기술서기관 박선국

◆**대보그룹** ◇ 대보그룹 △기획조정실 사장 이종일 ◇ 대보건설 △이사 김남용 안현후 이존석 △이사대우 임용규 정병용 이의문 ◇ 대보정보통신 △이사 조성천 △이사대우 장호식

◆**호반그룹** ◇ 승진·선임 △총괄부회장 최승남 〈호반건설〉 ◇ 선임 △대표이사 부회장 최승남 ◇ 승진 △상무 김은정 △상무보 홍성표 조동 허권일 김성제 △상무보B 박상욱 〈호반산업〉 ◇ 승진 △대표이사 사장 김진원 △상무보 김재용 〈호반호텔&리조트〉 ◇ 선임 △대표이사 장해석 ◇ 승진 △상무 노충종 〈대아청과〉 ◇ 선임 △대표이사 박재욱 △상무 김기영·이상용·박준홍 〈호반골프계열〉 ◇ 선임 △상무 최일근(코스관리 총괄) △상무 박공석(서서울CC 총지배인) ◇ 승진 △상무 김석진(스카이밸리CC 총지배인) △상무 권남정(덕평CC 총지배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 승진 △대표이사 상무 김철희

◆ **한화종합화학** 〈임원 승진〉 ◇ 전무 △이인재 ◇ 상무보 △안상수 △이건학

◆**한화에너지** ◇ 상무 △김창수 ◇ 상무보 △박종구

◆**코리아타임스** △편집인 오영진 △경영기획본부장 조재현

◆**라이나생명** ◇ 신규 임원 선임 △신사업개발본부 김병준 상무

◆ **ABL생명** ◇ 승진 △서부지역단장 배지훈 △대구지역단장 최영성 △광주지역단장 우상봉 △제주부지역단장 박경도 △중부BA사업단장 편시윤 △영남BA사업단장 김형규 ◇ 전보 △FC관리부장 임명기 △경기지역단장 박홍 △동부지역단장 한용희 △소비자부장 김현직

◆**한화손해보험** ◇ 임원 전보 △전략기획실장 강창완 △경영지원실장 정의봉 △업무지원실장 김영준 △개인영업부문장 도만구 △기업영업부문장 성시영 △인사팀장 장창섭 △기획관리팀장 김승균 △변화혁신팀장 권양훈 △장기보험팀장 안광진 △일반보험팀장 최용민 △SIU팀장 김석남 △개인영업지원팀장우용호 △소비자보호팀장직무대행 하진안 △서울지역본부장 최기진 △경영인지역본부장 여상훈 △신채널사업본부장 서지훈 △기업영업본부장 이재우 ◇ 팀장·본부장 전보 △자산운용본부장 손두호 △충청지역본부장 이명수 △투자전략팀장 임현빈 △영업컨설팅팀장 박찬량 ◇ 부서장 전보 △서울지역본부마케팅파트장 이택기

◆**한화케미칼·한화토탈** 〈한화케미칼〉◇ 부사장 승진 △김형준 ◇ 상무 승진 △양기원 △조병남 ◇ 상무보 승진 △김태형 △손인완 △이상일 △이석찬 △임상일 〈한화토탈〉 ◇ 상무 승진 △유병창 ◇ 상무보 승진 △임재곤 △김홍일 △송현 △박재옥 △김명헌 △신남철 △이우조

◆**통계청** ◇ 일반고위직공무원 임용 △통계데이터허브국 통계서비스정책관 이명호

부음

▲ 박형기씨 별세, 서정기(서울의대 명예교수)·서정선(한국바이오협회장·마크로젠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석좌교수)·서정완(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씨 모친상, 김교순(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은화씨 시모상, 김창진(아산병원 신경외과 교수)씨 장모상 =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2-3010-2263